

광주시 조례 상당수 손질 필요

입법평가대상 62건 분석 ... 28건 개선권고

청소년문화예술진흥조례 등 3건 폐지대상

광주시가 제정해 운영중인 조례 중 상당수가 개정 등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조례는 핵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개선권고를 받았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6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8건이 개선권고를 받았다. 청소년문화예술진흥조례 등 3건은 아예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광주시는 전체 조례 524건 중 조직운영이나 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 법령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한 중요 조례 62건을 평가했다.

제정 조례에 대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기본계획 수립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법령과 중복되는 등 존치 가치가 없을 경우는 폐지를, 일부 조항 개선이 필요하면 개정권고를,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의 주요 내용을 하지 않을 시 이행권고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관부서는 평가를 토대로 조례 폐지나 개정 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2007년 제정한 청소년문화예술진흥조례는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이 없는 데다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중복돼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노인건강증진조례와 도시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는 각각 고령사회기본법과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복됐다. 특히 도시정비 활성화 조례는 2012년 제정 뒤 사업신청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했다.

도시경쟁력제고 조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등 4건은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性比)가 맞지 않아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진흥조례, 식품안전기본조례 등 31건은 적정한 조례로 평가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 평가는 지난 2014년 첫 시행 이후 두번째로 이뤄진 것”이라며 “평가를 토대로 소관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나서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2차 광주문의회 21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광주문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에 3·1운동 기념탑, 역사박물관 필요 군 공항 이전 조속 해결 민관 힘 모아야”

지역 원로들, 회의서 제안

운장현 광주시장은 21일 지역 원로들을 초청해 ‘제2차 광주문의회’를 열고 민선 6기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원로 회의에는 정구선 원로회의 의장, 최상준 광주경총회장, 김필식 동신대 총장, 구창환 YMCA 명예이사회 회장, 조비오 신부 등 교육, 문화예술, 경제, 언론,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원로 16명이 참석했다.

운 시장은 인사말에서 “첫 시민시장으로서 정직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챙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항상 갖고 있다”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형 청년정책 등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

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원로들의 시정에 대한 제안과 조언도 이어졌다. 방철호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시정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구창환 YMCA 명예이사회 회장은 “광주는 예향이자, 의향의 도시로 청년들이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3·1운동 기념탑, 역사박물관 등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문의회는 교육, 문화예술, 경제,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지역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1명의 원로로 구성됐다. 시정발전 모색과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1경주장서 국내 최대 아마추어 레이싱대회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대회인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터테인먼트 4회전’이 24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국내 유일하게 승용차량과 레저용 차량(RV)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다. 2006년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이란 명칭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매 회전마다 200여 대의 차량이 출전, 한국 대표 아마추어 경주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4회전에는 총 10개 클래스 210여 대(승용 150대, RV 60대)의 차량이 참가하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GT(Grand Touring car) 클래스부터 육중한 RV까지 다양한 차량이 3.04km의 상설트랙을 질주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뛰어든 정병국 의원

“호남 소외없게 현안 직접 챙길 것”

“당 대표가 되면 호남 소외가 없도록 광주·전남의 지역 현안사업들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새누리당이 호남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한다는 말을 호남 지역 당원들에게 많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영호남 발전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호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편”이라며 “특히 당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지원 ▲충청 북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조속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법정부처 지원책 검토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우 노선 조기 확정 ▲전남 서부권 해양복합 육복합발전 조성 ▲연륙·연도교 건설사업 마무리 ▲남도문예 르네상스 예산적극 지원 등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던 정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했지만, 콘텐츠가 부족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주도가 아닌 광주시 주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아시아 문화대학 건립 또는 아시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새로운 운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청소년 캠프, 아시아 국가의 모든 음식과 공연이



박대통령 광주·전남공약 임기내 이뤄지도록 노력

차 100만대 등 예산 지원 문화전당 시·군도 운영해야

‘패거리식 계파’ 청산 위해 이정현에 공동선거운동 제안

이뤄지는 주말 장터 운영 등을 통해 국내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당권 경쟁에 나서는 이정현 의원의 공동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금 새누리당의 위기는 정치적·정책적 차이에 의한 계파가 아닌, 권력을 움

켜취기 위한 ‘패거리식 계파’라고 지적한 뒤 “이 의원의 공동선거운동은 이러한 ‘패거리식 계파’ 청산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이 의원에게 공동선거운동을 제안했고, 이 의원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누리당은 ‘진박’(진 박근혜)계만 있을 뿐”이라며 “언론에서 자주 ‘비박’이라고 하는데, 계파가 아니라 진박계가 아닌 의원들 모두가 ‘비박’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내 공천개발 갈등과 청와대 우병우 수석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참피해서 국민들 뱉기가 민망하다”면서 “이제는 천박한 갑질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강한 수평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의)당권 도전 배경이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현장에 항상 답은 있다”면서 “주 1회 시도당 순회 연석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당정회의를 열고, 대국민 현장토론회 및 정책·현안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이날 광주를 방문한 정 의원은 새누리당 광주지역 원로들과 당협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뒤 지지를 호소했다.

5선인 정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당내 혁신파로 꼽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전남도, 낙지 금어기 첫 지정 ‘성공적’ ... 자원량 증가 기대

전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낙지 금어기(6월 21일~7월 20일)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낙지 자원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낙지 금어기는 각 시·도·시·군·자치구·군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어업인 의견과 어장 여건 등을 적극 검토해 20일경 한 달간을 지정했다.

전남도는 금어기 시행 첫 해인 만큼 정

작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어기 시행 전 시·군 및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언론 보도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낙지잡이 어업인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남지역 수협에서는 금어기 기간 동안 낙지 위판을 전면 중단했고, 무안 낙지골목 상인 및 낙지 직판장에서 도 영업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자진 휴업하는 등 낙지 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했다.

전남도는 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모든 낙지 포획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 유통업체와 수협위판장 등을 집중 단속해 금어 기간을 위반한 낙지 불법 포획행위 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금어기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준 만큼 낙지 자원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낙지 금어기 기간의 적정성, 자원 조성 효과 등 장·단점 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낙지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balcony 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 (주) | 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